

고1부터 정시 40%로 확대... '학종 위축' 대입 '지각 변동'

서울 소재 대부분 대학 정시 동반 확대 예상

면접·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부활 전망

교육부가 서울 16개 대학 정시 40% 이상 확대와 학생부 주요 비교과 영역의 대입 미반영을 골자로 하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향후 대입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입시업계에서는 정시 확대 대상 대학들이 대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다른 대학의 정시 비중 동반 증가를 전망했다. 또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로 서울 소재 대학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이 다소 위축되고 폐지 수순을 밟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부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고1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부는 늦어도 2023학년도 대입 때까지는 이들 대학의 정시 40% 이상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2021학년도 대입 기준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비중 평균은 29.0%다. 모집인원으로 따지면 1만4787명이다. 40%까지 이상 확대할 경우 2만412명으로 5625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입시현장에서는 이들 대학이 정시를 확대할 경우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확대 대상으로 지목된 대학들은 대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며 "특히 지원자 풀이 비슷한 서울 소재 대학들도 대입전형 비중 조정이 불가피해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 붐이 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시 확대에 따라 졸업생 수능 응시 비율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재진 대학미래연구소장은 "정시모집 인원이 증가하면 재수·반수생들이 이전에 비해 더 늘어 중도탈락 학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현재 중2에 적용될 2024학년도 대입부터 부모나 사교육 개입 여지가 큰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도 폐지하는 것도 주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들의 학종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중2가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내 정규교과과정 외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지 않고 자기소개서까지 폐지하면 대학들은 학생 선발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따라서 학종의 비중을 소폭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부교과전형 확대·신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재진 소장은 "학종 평가권 제한 등으로

학종 비중을 줄일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학생부 교과전형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른바 학종 포기자도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학생부 기재항목 축소로 내신 비중이 매우 커졌다"며 "고교 1학년 이후 내신 3등급급 학생들이 학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신 관리에 실패해 수사에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재학생들이 자퇴 후 수능 준비에 매진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대학들은 학종에서의 선발을 위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영덕 소장은 "대학들은 학종에서의 내신성적 반영 비중을 높이고 면접이나 수능최저학력기준 강화·부활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만기 소장은 "결과적으로 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023학년도 대입일부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의 정시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번 방안에 따라 향후 대입의 양태는 내신과 수능으로 양분된 셈"이라고 총평했다.

이번 방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2는 고입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덕 소장은 "향후 대입 변화

로 특수목적·자율형사립고, 서울 강남지역 일반고 학생들이 수시대세 시절보다 입시에 대한 불리함은 다소 줄었다"면서도 "다만 내신의 영향력이 좀 더 강화된 만큼 자신의 장점을 잘 판단해 고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중2부터 대입 자소서 폐지...학생부 비교과 대폭 축소

학생부 수상경력·독서활동 등 대입 미반영

학생부 주요항목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구분	현 고2~고3 (20~21학년도 대입)	현 중3~고1 (22~23학년도 대입)	현 중2 (24학년도 대입)
① 교과활동	• 과목당 500자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과목당 500자 •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 종합의견	• 연간 1,0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자율활동	• 연간 1,000자	• 연간 500자	•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 정규·자율동아리, 청소년 단체 활동, 스포츠클럽활동 기재 • 소논문 기재 가능	•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 (30자)만 기재 • 청소년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 기재 금지
③ 비교과 영역			
봉사활동	• 연간 500자 • 실적 및 특기사항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실적 기재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	• 연간 1,000자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	• 모든 교내수상	• 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 (3년간 6건) 대입 반영	• 대입 미반영
독서활동	• 도서명과 저자	• 도서명과 저자	• 대입 미반영

*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자료: 교육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관련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브리핑을 열어 고교 단계에서의 학종 공정성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학종에서 부모 배경이나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학생부·자기소개서 등을 개선하고 교사·학교간 학종 대비역량 차이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유 부총리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생부·자기소개서 개선 내용은 고등교육법상 '대입제도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즉각 반영이 가능한 교사 학교 학종 대비역량 강화는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핵심 변화는 학생부 내 정규교

과과정 외 비교과 영역 대폭 축소다. 주요 비교과 영역으로 꼽히는 수상경력, 독서활동,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은 입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영역들은 그동안 부모 찬스나 사교육 개입, 왜곡 기재 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022~2023학년도 대입 기준 학생부 수상경력은 연 2건씩 고교 3년간 최대 6건까지 반영된다. 독서활동은 도서명과 저자만 기재해 대학에 넘긴다. 자율동아리 활동은 연 1건씩 고교 3년간 총 3건만 제출 가능하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기재는 하더라도 대학에는 해당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또 다른 비교과 영역인 청소년 단체활동은 아예 쓰지 않기로 못박았다. 2022~2023학년도에는 청소년단체활동을 한 단체명만 적을 수 있었다.

교과 영역에도 메스를 댔다. 영재·발명교육 실적을 대입에 미반영하기로 했다.

자기소개서는 아예 없앤다. 교육부는 그동안 단계적 축소 기초를 유지해왔지만 '자소서' 논란·사교육 개입 등 우려가 커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고2까지는 학종

지원시 제출하는 자기소개서에 4개 문항 기준 총 5000자까지, 고1~중3은 3개 문항 기준 3100자까지 적을 수 있다.

교사추천서 폐지는 재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현재 고1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상경력 등) 학생부 기재영역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학생부 골격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며 "또 대학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교과·비교과영역 통합 평가가 가능한 행동특성 발달사항 등 내용·분량이 충분한 다른 학생부 기재영역으로도 충분히 학생 선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와 학교의 학종 대비 역량도 강화한다. 교사·학교에 따라 학생부 기재수준의 차이가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교원 연수 모듈을 개발하고 연수 자체도 늘린다. 교사와 입학생간 연계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주요 학생부 기재영역인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표준안도 만들어 내년 학교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이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당 수업시수가 많은 국어·영어·수학부터 적용하고 이후 다른 교과로 늘려나가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에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와 관련해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부 비위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교사 학생부 허위기재를 하거나 기재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국립·공립·사립 등 소속에 상관없이 엄정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또 대학이 전형과정에서 학생부 기재금지 사항을 발견했을 때 이를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넘겨받은 관할 교육청은 비위 정도에 따라 교사와 학교를 처벌해야 하고 감사도 진행해야 한다. 대학은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라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 해당학생의 입학 취소도 추진해야 한다.

교육당국의 관리·감독도 내실화한다. 학생부 기재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학생부 비위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뉴스1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